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만금 같은 너를 만나 백년해로하잖더니, 금일 이별 어이하리! 너를 두고 어이 가진 말이냐? 나는 아마도 못 살겠다! 내 마음에는 어르신네 공조참의 승진 말고, 이 고을 풍헌(風憲)만 하신다면 이런 이별 없을 것을, 생는 나을 일을 당하니, 이를 어이한단 말이고? 귀신이 장난치고 조물주가 시기하니, 누구를 탓하겠느냐는 속절없이 춘향을 어찌할 수 없네! 네 말이 다 못 될 말이니, 아무튼 잘 있거라!

[A]

춘향이 대답하되, 우리 당초에 광한루에서 만날 적에 내가 먼저 도련님더러 살자 하였소? 도련님이 먼저 나에게 하신 말씀은 다 잊어 계시오? 이런 일이 있겠기로 처음부터 마다하지 아니하였소? 우리가 그때 맺은 금석 같은 약속 오늘날 다 허사로세! 이리해서 분명 못 데려가겠소? 진정 못 데려가겠소? 떠보려고 이리하시오? 끝내 아니 데려가시려 하오? 정 아니 데려가실 터이면 날 죽이고 가오!

그렇지 않으면 광한루에서 날 호리려고 ㉠ 명문(明文) 써 준 것이 있으니, ㉡ 소지(所志) 지어 가지고 본관 원님께 이 사연을 하소연하겠소. 원님이 만일 당신의 귀공자 편을 들어 폐소시키시면, 그 소지를 덧붙이고 다시 글을 지어 전주 감영에 올라가서 순사또께 소장(訴狀)을 올리겠소. 도련님은 양반이기에 ㉢ 편지 한 장만 부치면 순사또도 같은 양반이라 또 나를 폐소시키거든, 그 글을 덧붙여 한양 안에 들어가서, 형조와 한성부와 비변사까지 올리면 도련님은 사대부라 여기저기 청탁하여 또다시 송사에서 지게 하겠지요. 그러면 그 ㉣ 판결문을 모두 덧붙태어 푼푼 말아 품에 품고 팔만장안 억만가호마다 걸식하며 다니다가, 돈 한 푼씩 빌어 얻어서 동이전에 들어가 바리뚜껍 하나 사고, 지전으로 들어가 장지 한 장 사서 거기에다 언문으로 ㉤ 상언(上言)을 쓸 때, 마음속에 먹은 뜻을 자세히 적어 이월이나 팔월이나, 동교(東郊)로나 서교(西郊)로나 임금님이 능에 거동하실 때, 문밖으로 내달아 백성의 무리 속에 섞여 있다가, 용대기(龍大旗)가 지나가고, 협연군(挾輦軍)의 자개창이 들어서며, 붉은 양산이 따라오며, 임금님이 가마나 말 위에 당당히 지나가실 제, 활각 뛰어 내달아서 바리뚜껍 손에 들고, 높이 들어 땡땡하고 세 번만 쳐서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격쟁(擊鉦)을 하오리다! 애고애고 설운지고!

그것도 안 되거든, 애쓰느라 마르고 초조해하다 죽은 후에 닳이라도 삼수갑산 험한 곳을 날아다니는 재미가 되어 도련님 계신 처마에 짐을 지어, 밤이 되면 집으로 들어가는 체하고 도련님 품으로 들어가 볼까! 이별 말이 웬 말이오?

이별이란 두 글자 만든 사람은 나와 백 년 원수로다! 진시황이 분서(焚書)할 때 이별 두 글자를 잊었던가? 그때 불살랐다면 이별이 있을꼬냐? 박랑사(博浪沙)*에서 쓰고 남은 철퇴를 천하장사 항우에게 주어 힘껏 돌려머어 이별 두 글자를 깨치고 싶네! 옥황전에 솟아올라 억울함을 호소하여, 벼락을 담당하는 상좌가 되어 내려와 이별 두 글자를 깨치고 싶네!

- 작자 미상, 「춘향전」 -

* 박랑사 : 중국 지명. 장량이 진시황을 암살하려 했던 곳.

(나)

이별이라네 이별이라네 이 도령 춘향이 이별이로다 춘향이 도련님 앞에 바짝 달려들어 눈물짓고 하는 말이

도련님 들으시오 나를 두고 못 가리다
나를 두고 가겠으면 홍로화(紅爐火) 모진 불에다 사르겠으면 사르고 가시오
날 살려 두고는 못 가시리라
잡을 데 없으시면 ㉠ 살단같이 좋은 머리를

[B]

휘휘칭칭 감아취고라도 날 데리고 가시오
살려 두고는 못 가시리라
날 두고 가겠으면 용전검(龍泉劍) 드는 칼로다
요 내 목을 베겠으면 베고 가시오
날 살려 두고는 못 가시리라
두어 두고는 못 가시리라
날 두고 가겠으면 ㉡ 영천수(潁川水) 맑은 물에다 던지겠으면 던지고나 가시오
날 살려 두고는 못 가시리라

이리 한참 힐난하다 할 수 없이 도련님이 떠나실 때 방자 놈 분부하여 나귀 안장 고이 지으니
도련님이 나귀 등에 올라앉으실 때
춘향이 기가 막혀 미칠 듯이 날뛰다가
우르르 달려들어 나귀 꼬리를 부여잡으니

㉢ 나귀 네 발로 동동 굴러 춘향 가슴을 찰 때
안 나던 생각이 절로 나

그때에 이별 별(別) 자 내인 사람 나와 한백 년 대원수로다
깨치리로다 깨치리로다 박랑사 중 쓰고 남은 철퇴로
천하장사 항우 주어 이별 두 자를 깨치리로다
할 수 없이 도련님이 떠나실 때

향단이 준비했던 주안을 갖추어 놓고
푹고추 겨리김치 문어 전복을 곁들여 놓고
잡수시오 잡수시오 이별 낭군이 잡수시오
언제는 살자 하고 화촉동방(華燭洞房) 긴긴 밤에
청실홍실로 인연을 맺고 백 년 살자 언약할 때
물을 두고 맹세하고 산을 두고 증삼(曾參)* 되자더니

㉣ 산수 증삼은 간 곳이 없고

이제 와서 이별이란 웬 말이오

잘 가시오

잘 있거라

산첩첩(山疊疊) 수중중(水重重)한데 부디 편안히 잘 가시오

나도 ㉤ 명년 양춘가절*이 돌아오면 또다시 상봉할까나

- 작자 미상, 「춘향이별가」 -

* 증삼 : 공자의 제자. 고지식하여 약속을 반드시 지킴.

* 양춘가절 : 따뜻하고 좋은 봄철.

1.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도련님'은 이별의 상황이 자신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춘향'은 '도련님'을 처음 만날 때부터 이별의 상황을 우려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 ③ '춘향'은 '도련님' 곁에 머물고 싶은 마음을 자연물에 의탁하여 드러내고 있다.
- ④ '춘향'은 고사를 활용하여 자신의 상황이 역사적 사건과 관련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다.
- ⑤ '춘향'은 천상의 존재에게 억울함을 전하는 상황을 설정하여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2.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도련님'의 마음을 확인하고자 '춘향'이 쓴 글이다.
- ② ㉡: '도련님'이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는 내용이 담길 것이다.
- ③ ㉢: '춘향'과의 친밀감을 강화하려는 '도련님'의 마음을 전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다.
- ④ ㉣: '도련님'에게는 약속 파기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밝히는 내용이 담길 것이다.
- ⑤ ㉣: '춘향'이 '순사또'의 힘을 빌려 '임금'에게 자신의 입장을 전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다.

3.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인물이 지닌 자부심을 환기하여 좌절감을 완화하는 소재이다.
- ② ㉡는 초월적 공간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어 현재의 고통과 대비하기 위한 소재이다.
- ③ ㉢는 부정적인 상황을 회화화함으로써 당면한 현실을 풍자하는 표현이다.
- ④ ㉣는 기대가 어긋나 버린 사정을 부각하여 비애감을 심화하는 표현이다.
- ⑤ ㉣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대상과의 재회를 확신하는 표현이다.

4.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여러 작품에서 '춘향'은 다양한 면모를 지닌 인물로 형상화되었다. '춘향'은 원치 않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수용적 면모를 보이기도, 목표를 이루려 단호하게 행동하는 적극적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신세를 한탄하며 절규하는 격정적 면모를 드러내는가 하면, 문제를 숙고하여 대응책을 모색하는 치밀한 면모를 표출하기도 한다. 한편 '춘향'은 당대 민중의 시각을 대변하는 면모를 지니기도 한다.

- ① (가)에서 양반들이 한통속이어서 '도련님'을 두둔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모습을 통해, 민중의 입장을 취하는 '춘향'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 ② (가)에서 구걸하고 다니면서라도 자신의 상황을 알려겠다는 모습을 통해, 뜻한 바를 성취하려는 '춘향'의 적극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 ③ (나)에서 이별 후 자신이 겪을 고난을 말하며 '도련님'의 마음을 돌리려는 모습을 통해, 문제 해결책을 강구하는 '춘향'의 치밀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 ④ (나)에서 '도련님'에게 주안을 울리며 어쩔 수 없이 이별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통해, 서글픈 현실을 감내하려는 '춘향'의 수용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 ⑤ (가), (나)에서 '이별'이라는 두 글자를 철퇴로 깨뜨리고자 하는 모습을 통해, 폭발친 감정을 토로하면서 탄식하는 '춘향'의 격정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5. <보기>를 바탕으로 [A], [B]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조선 후기에 책을 대여하고 값을 받는 세책업자는 「춘향전」을 (가)와 같은 세책본 소설로, 유희적 노래를 지은 잡가의 담당층은 「춘향전」의 대목을 (나)와 같은 잡가로 제작했다. 세책업자는 과장되고 재치 있는 표현을 활용하여 흥미를 높이거나 특정 부분의 분량을 늘려 이윤을 얻으려 했다. 잡가의 담당층은 노래의 내용을 단시간에 전달하기 위해 상황을 집약해 설명하고 인물의 감정을 드러내는 가사를 반복해 청중의 공감을 끌어냈다. 연속되지 않은 장면들을 엮어 노래를 구성할 때에는 작품 속 화자의 역할이 바뀌기도 하였다.

- ① [A]에서 '생뉘 나온 일'이라는 과장된 표현을 쓴 것은 작품의 흥미를 높이려는 취지와 관련되었군.
- ② [A]에서 '도련님'에게 거듭하여 묻는 형식을 사용한 것은 분량을 늘리려는 의도와 관련되었군.
- ③ [B]에서 첫 행에 작품의 상황을 제시한 것은 청중을 작품의 내용에 빠르게 끌어 들이려는 전략과 관련되었군.
- ④ [B]에서 '못 가시리다'라는 구절을 반복하여 인물의 감정을 강조한 것은 청중의 공감을 유발하려는 목적과 관련되었군.
- ⑤ [B]에서 화자가 해설자에서 인물로 역할을 바꾸는 것은 연속되지 않은 장면들이 엮여 작품이 구성되었음을 알게 해 주는 단서이겠군.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여러 작품에서 '춘향'은 다양한 면모를 지닌 인물로 형상화되었다. '춘향'은 원치 않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수용적 면모를 보이기도, 목표를 이루려 단호하게 행동하는 적극적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신세를 한탄하며 절규하는 격정적 면모를 드러내는가 하면, 문제를 숙고하여 대응책을 모색하는 치밀한 면모를 표출하기도 한다. 한편 '춘향'은 당대 민중의 시각을 대변하는 면모를 지니기도 한다.

✓ 읽기 전 활동

여러 작품에 등장하는 '춘향'에 대해 말하는 〈보기〉입니다. '춘향'이 보이는 면모는 다양한데 수용적 면모, 적극적 면모, 격정적 면모, 치밀한 면모, 그리고 민중의 시각을 대변하는 면모를 지닌다고 합니다. 이 면모들이 (가)와 (나) 중 어디에 나타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작품을 읽으면서 나타나는 '춘향'의 모습과 〈보기〉에서 제시된 면모들을 연결해야 합니다.

(가)

만금 같은 너를 만나 백년해로하겠더니, 금일 이별 어이하리! 너를 두고 어이 가잔 말이나? 나는 아마도 못 살겠다! 내 마음에는 어르신네 공조참의 승진 말고, 이 고을 풍헌(風憲)만 하신다면 이런 이별 없을 것을, 생년 나을 일을 당하니, 이를 어이한단 말이고? 귀신이 장난치고 조물주가 시기하니, 누구를 탓하겠나마는 속절없이 춘향을 어찌할 수 없네! 네 말이 다 못 될 말이니, 아무튼 잘 있거라!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② 인물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이 인물은 춘향에게 백년해로하자고 했으나 어르신네 공조참의 승진 말고 이 고을 풍헌만 하신다면 이런 이별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어르신네 승진 때문에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춘향과 이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어찌하냐며 귀신이 장난치고 조물주가 시기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탓하겠나마는 이별의 상황을 어찌할 수 없다며 춘향에게 잘 있으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춘향과 인물 간의 이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춘향전에 대한 배경지식이 있기에 이 인물은 이몽룡임을 알 수 있습니다.

춘향이 대답하되, 우리 당초에 광한루에서 만날 적에 내가 먼저 도련님더러 살자 하였소? 도련님이 먼저 나에게 하신 말씀은 다 잊어 계시오? 이런 일이 있겠기로 처음부터 마다하지 아니하였소? 우리가 그때 맺은 금석 같은 약속 오늘날 다 허사로세! 이리해서 분명 못 데려가겠소? 진정 못 데려가겠소? 때보려고 이리하시오? 끝내 아니 데려가시려 하오? 정 아니 데려가실 터이면 날 죽이고 가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② 인물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춘향은 몽룡의 말을 듣고 당초에 자기가 먼저 도련님에게 살자 한 것이 아니라며 도련님이 먼저 자신에게 약속을 맺었다고 합니다. 도련님이 춘향에게 먼저 백년해로하자고 약속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춘향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춘향은 몽룡에게 진정 자신을 못 데려가겠냐며 차라리 자신을 죽이고 가라고 합니다. 몽룡과 이별하기 싫어하는 춘향의 모습이 잘 나타나는 대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한루에서 날 호리려고 명문(明文) 써 준 것이 있으니, 소지(所志) 지어 가지고 본관 원님께 이 사연을 하소연하겠소. 원님이 만일 당신의 귀공자 편을 들어 패소시키시면, 그 소지를 덧붙이고 다시 글을 지어 전주 감영에 올라가서 순사또께 소장(訴狀)을 올리겠소. 도련님은 양반이기에 편지한 장만 부치면 순사또도 같은 양반이라 또 나를 패소시키거든, 그 글을 덧붙여 한양 안에 들어가서, 형조와 한성부와 비변사까지 올리면 도련님은 사대부라 여기저기 청탁하여 또다시 송사에서 지게 하겠지요. 그러면 그 판결문을 모두 덧붙여 푹푹 말아 품에 품고 팔만장안 억만가호마다 걸식하며 다니다가, 돈 한 푼씩 빌어 얻어서 동이전에 들어가 바리뚜껑 하나 사고, 지전으로 들어가 장지 한 장 사서 거기에다 언문으로 상언(上言)을 쓸 때, 마음속에 먹은 뜻을 자세히 적어 이월이나 팔월이나, 동교(東郊)로나 서교(西郊)로나 임금님이 능에 거둥하실 때, 문밖으로 내달아 백성의 무리 속에 섞여 있다가, 용대기(龍大旗)가 지나가고, 협연군(挾輦軍)의 자개창이 들어서며, 붉은 양산이 따라오며, 임금님이 가마나 말 위에 당당히 지나가실 제, 왈각 뛰어 내달아서 바리뚜껑 손에 들고, 높이 들어 땡땡하고 세 번만 쳐서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격쟁(擊鐙)을 하오리다! 애고애고 설운지고!

그것도 안 되거든, 애쓰느라 마르고 초조해하다 죽은 후에 녀이라도 삼수감산 험한 곳을 날아다니는 제비가 되어 도련님 계신 처마에 집을 지어, 밤이 되면 집으로 들어가는 체하고 도련님 품으로 들어가 볼까! 이별 말이 웬 말이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② 인물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만약 자신을 데려가지 않으면 소지를 지어 본관 원님에게 이 사연을 하소연하겠다고 합니다. 원님이 몽룡의 편을 들어 패소시키면 다시 글을 지어 순사또께 가겠다고 합니다. 순사또도 몽룡과 같은 양반이기에 패소시킨다면 한양으로 들어가 비변사에 올린다고 합니다. 몽룡은 사대부라 여기저기 청탁해 패소시키면 이 판결문을 갖고 걸식하다 왕이 지나가면 억울함을 호소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조차 안 되거든 죽은 후에 녀이라도 제비가 되어 도련님 계신 곳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몽룡과 헤어지기 싫어하는 춘향의 심리가 매우 잘 나타납니다.

이 부분에서 춘향의 여러 면모가 잘 나타납니다. 우선 춘향은 글을 지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했으니 춘향의 적극적 면모가 잘 나타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단호하게 행동하려는 춘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당대 민중의 시각을 대변하는 면모도 나타납니다. 춘향은 몽룡이 양반이기에 순사또가 몽룡의 편을 들 것이라고 하고, 몽룡이 사대부라 청탁해 비변사에서 자신을 패소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양반들이 한통속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보기>의 내용을 토대로 당대 민중들이 양반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길었지만 주요 내용은 춘향이 몽룡과 이별하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세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어도, <보기>의 내용과 연결짓는 것이 어려웠어도 춘향의 심리는 파악했어야 합니다.

이별이란 두 글자 만든 사람은 나와 백 년 원수로다! 진시황이 분서(焚書)할 때 이별 두 글자를 잊었던가? 그때 불살랐다면 이별이 있을쏘냐? 박랑사(博浪沙)*에서 쓰고 남은 철퇴를 천하장사 항우에게 주어 힘껏 돌려메어 이별 두 글자를 깨치고 싶네! 옥황전에 솟아올라 억울함을 호소하여, 벼락을 담당하는 상좌가 되어 내려와 이별 두 글자를 깨치고 싶네!

-작자 미상, 「춘향전」-

* 박랑사: 중국 지명. 장량이 진시황을 암살하려 했던 곳.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② 인물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춘향은 이별이란 두 글자 만든 사람은 원수라며 철퇴로 이별 두 글자를 깨치고 싶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별을 하기 싫어하는 춘향의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이는 <보기>에서 나온 춘향의 걱정적 면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몽룡과 이별해야 하는 신세를 한탄하며 절규하는 춘향의 면모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품 총평

우리가 잘 아는 춘향전입니다. 작품의 줄거리를 잘 알고 있는 작품이기에 읽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에 작품 속에서 춘향이 어떤 심리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보기>와 잘 연결지어 작품을 읽어냈어야 합니다.

(나)

이별이라네 이별이라네 이 도령 춘향이 이별이로다
 춘향이 도령님 앞에 바짝 달려들어 눈물짓고 하는 말이
 도령님 들으시오 나를 두고 못 가시리다
 나를 두고 가겠으면 홍로화(紅爐火) 모진 불에
 다 사르겠으면 사르고 가시오
 날 살려 두고는 못 가시리다
 잡을 데 없으면 삼단같이 좋은 머리를

휘휘칭칭 감아쥐고라도 날 데리고 가시오
 살려 두고는 못 가시리다
 날 두고 가겠으면 용천검(龍泉劍) 드는 칼로다
 요 내 목을 베겠으면 베고 가시오
 날 살려 두고는 못 가시리다
 두어 두고는 못 가시리다
 날 두고 가겠으면 영천수(潁川水) 맑은 물에다
 던지겠으면 던지고나 가시오
 날 살려 두고는 못 가시리다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시적 대상 파악하기

현재 시적 상황은 춘향과 이 도령이 이별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먼저 춘향의 말이 제시됩니다. 춘향은 이 도령에게 자신을 두고 가지 못한다며 자신을 두고 갈 것이면 자신을 불에 사르고 가라고 합니다. 잡을 곳이 없다면 머리를 감아쥐고서라도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자신을 두고 갈 것이면 목을 베거나 영천수에 던지고 가라고 합니다. 자신을 살려 두고는 갈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가) 작품과 마찬가지로 도령과 이별하는 것을 거부하는 춘향의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이리 한참 험난하다 할 수 없이 도련님이 떠나실 때
 방자 놔 분부하여 나귀 안장 고이 지으니
 도련님이 나귀 등에 올라앉으실 때
 춘향이 기가 막혀 미칠 듯이 날뛰다가
 우르르 달려들어 나귀 꼬리를 부여잡으니
 나귀 네 발로 동동 굴러 춘향 가슴을 찰 때
 안 나던 생각이 절로 나
 그때에 이별 별(別) 자 내인 사람 나와 한백 년 대원수로다
 깨치리로다 깨치리로다 박랑사 중 쓰고 남은 철퇴로
 천하장사 항우 주어 이별 두 자를 깨치리로다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시적 대상 파악하기

계속해서 춘향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도련님은 이제 떠나려고 나귀 등에 올라앉았습니다. 그러자 춘향이 기가 막혀 날뛰다가 나귀 꼬리를 잡습니다. 도련님이 떠나지 않길 바라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귀는 네 발로 춘향의 가슴을 찰니다. 그러자 춘향은 이별이라는 글자를 철퇴로 깨치고 싶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가)에서도 본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이별이란 글자를 깨치고 싶다는 도련님과 이별하기 싫어하는 춘향의 심리가 잘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의 춘향 역시 걱정적 면모가 잘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이 도련님이 떠나실 때
 향단이 준비했던 주안을 갖추어 놓고

꽃고추 거리김치 문어 전복을 곁들여 놓고
 잡수시오 잡수시오 이별 낭군이 잡수시오
 언젠는 살자 하고 화촉동방(華燭洞房) 긴긴 밤에
 청실홍실로 인연을 맺고 백 년 살자 언약할 때
 물을 두고 맹세하고 산을 두고 증삼(曾參)* 되자더니
 산수 증삼은 간 곳이 없고
 이제 와서 이별이란 웬 말이오
 잘 가시오
 잘 있거라
 산적첩(山疊疊) 수중중(水重重)한데 부디 편안히 잘 가시오
 나도 명년 양춘가절*이 돌아오면 또다시 상봉할까나
 - 작자 미상, 「춘향이별가」 -
 * 증삼 : 공자의 제자. 고지식하여 약속을 반드시 지킴.
 * 양춘가절 : 따뜻하고 좋은 봄철.

필수적 독해 태도

-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 ② 시적 대상 파악하기

춘향은 할 수 없이 도련님과 이별하게 됩니다. 향단(춘향)은
 주안을 갖추어 놓고 문어 전복을 곁들여 놓고 이별하는 도
 련님에게 대접합니다. 백 년 언약을 했지만 이별이란 웬 말
 이냐고 하지만 결국 춘향과 도령은 이별하게 됩니다. 그러
 면서 춘향은 봄철이 오면 상봉할 수 있을까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다시 임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나타내
 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품 총평

춘향과 도령이 이별하는 상황을 시로 쓴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 화자의 심리가 나타나지는 않고 춘향의 심리를 서
 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시를 읽을 때와는 다르게
 춘향에 주목하면서 작품을 읽어야 합니다. 내용 자체는
 우리가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1.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④

- ① '도련님'은 이별의 상황이 자신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 '도련님'은 이별의 상황에 대해 어르신네 공조참의 승진 때문에 어이할 수 없다고 하며 귀신이 장난치고 조물주가 시기해 누구를 탓하겠느냐는 속절없이 춘향을 어찌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련님'이 이별의 상황이 자신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불가피한 상황임을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② '춘향'은 '도련님'을 처음 만날 때부터 이별의 상황을 우려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 '춘향'은 '도련님'에게 '이런 일이 있겠기로 처음부터 마다하지 아니하였소?'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별할 일이 있기에 처음부터 '도련님'과의 만남을 마다했다는 것임

다. 그렇기에 '춘향'은 '도련님'을 처음 만날 때부터 이별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③ '춘향'은 '도련님' 곁에 머물고 싶은 마음을 자연물에 의탁하여 드러내고 있다.

→ '춘향'은 죽은 후에 제비가 되어 '도련님' 계신 곳으로 가고 싶다고 합니다. 이는 '춘향'이 '도련님' 곁에 머물고 싶은 마음을 자연물인 제비에 의탁해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④ '춘향'은 고사를 활용하여 자신의 상황이 역사적 사건과 관련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다.

→ '춘향'은 진시황에 관한 고사를 활용하면서 이별을 하기 싫어하는 자신의 심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자신의 상황이 역사적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단순히 자신의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지, 역사적 사건과 관련이 있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⑤ '춘향'은 천상의 존재에게 억울함을 전하는 상황을 설정하여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춘향'은 옥황전에 솟아올라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춘향'이 천상의 존재에게 억울함을 전하는 상황을 설정해 자신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④

- ㉠ 명문(明文)
- ㉡ 소지(所志)
- ㉢ 편지 한 장
- ㉣ 판결문
- ㉤ 상언(上言)

- ① ㉠ : '도련님'의 마음을 확인하고자 '춘향'이 쓴 글이다.
- ㉠은 '도련님'이 광한루에서 '춘향'을 호리려고 쓴 글입니다. 그러므로 '춘향'이 '도련님'의 마음을 확인하고자 쓴 글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 ② ㉡ : '도련님'이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는 내용이 담길 것이다.
- ㉡은 '춘향'이 '도련님'과 자신이 이별하는 상황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련님'이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는 내용이 담긴다고 볼 수 없습니다.
- ③ ㉢ : '춘향'과의 친밀감을 강화하려는 '도련님'의 마음을 전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다.
- '도련님'은 양반이기에 ㉢을 써 '춘향'을 패소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은 '춘향'을 패소시킬 수 있는 소재입니다. 그렇기에 이는 '춘향'과의 친밀감을 강화하려는 '도련님'의 마음을 전하는 내용이 담길 리가 없습니다.

④ ㉔: '도련님'에게는 약속 파기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밝히는 내용이 담길 것이다.

→ '춘향'은 형조와 한성부와 비변사에 자신의 사연을 올리면 '도련님'은 사대부라 여기저기 청탁해 송사에서 지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송사의 내용이 ㉔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㉔에는 '도련님'에게 '춘향'과의 약속 파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⑤ ㉕: '춘향'이 '순사또'의 힘을 빌려 '임금'에게 자신의 입장을 전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다.

→ '순사또'는 '춘향'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춘향'을 패소시키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춘향'이 '순사또'의 힘을 빌린다는 말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3. ㉔~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④

- ㉔ 삼단같이 좋은 머리
- ㉕ 영천수(潁川水) 맑은 물
- ㉔ 나귀 네 발로 동동 굴러
- ㉔ 산수 증삼은 간 곳이 없고
- ㉕ 명년 양춘가절*이 돌아오면 또다시 상봉할까나

① ㉔은 인물이 지닌 자부심을 환기하여 좌절감을 완화하는 소재이다.

→ ㉔은 춘향 자신의 머리를 삼단같이 좋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머리카락에 대한 자부심을 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좌절감을 완화하는 소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춘향은 ㉔를 잡고 자신을 데리고 가라며 이별하기 싫다고 하고 있지, 이별 상황에 대한 좌절감을 완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② ㉕은 초월적 공간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어 현재의 고통과 대비하기 위한 소재이다.

→ ㉕은 춘향이 자신을 두고 갈 것이면 여기에 자신을 던지고 가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소재 또한 도련님과 이별하기 싫다는 춘향의 심리를 드러내는 소재이지, 초월적 공간에 대한 지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③ ㉕은 부정적인 상황을 희화화함으로써 당면한 현실을 풍자하는 표현이다.

→ ㉕은 춘향이 도련님이 탄 나귀 꼬리를 부여잡으니 나귀가 춘향을 차는 상황입니다. 임과 이별하는 이 상황이 부정적인 상황이라고는 볼 수 있으나, 이 상황을 희화화해 현실을 풍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④ ㉔는 기대가 어긋나 버린 사정을 부각하여 비애감을 심화하는 표현이다.

→ ㉔는 춘향이 물을 두고 맹세한 것과 산수 증삼은 간 곳

이 없다고 하며 이별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㉔는 도련님과 이별하게 된 사정인 기대가 어긋나 버린 사정을 부각해 춘향의 비애감을 심화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⑤ ㉔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대상과의 재회를 확신하는 표현이다.

→ ㉔는 춘향이 도련님과 명년에 또다시 상봉할 수 있을까 하며 의문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도련님과의 재회를 확신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4.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③

<보기>

여러 작품에서 '춘향'은 다양한 면모를 지닌 인물로 형상화되었다. '춘향'은 원치 않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수용적 면모를 보이기도, 목표를 이루려 단호하게 행동하는 적극적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신세를 한탄하며 질규하는 걱정적 면모를 드러내는가 하면, 문제를 숙고하여 대응책을 모색하는 치밀한 면모를 표출하기도 한다. 한편 '춘향'은 당대 민중의 시각을 대변하는 면모를 지니기도 한다.

① (가)에서 양반들이 한통속이어서 '도련님'을 두둔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모습을 통해, 민중의 입장을 취하는 '춘향'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 (가)에서 '춘향'은 원님이 '도련님'이 귀공자라 패소시킬 것이고, 순사또도 '도련님'이 양반이라 패소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면 '춘향'은 양반들이 한통속이어서 '도련님'을 두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양반의 부정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보기>에서 '춘향'은 당대 민중의 시각을 대변한다고 했기에 양반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춘향'의 시선은 당대 민중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가)에서 구걸하고 다니면서라도 자신의 상황을 알리겠다는 모습을 통해, 뜻한 바를 성취하려는 '춘향'의 적극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 (가)에서 춘향은 걸식하고 구걸하고 다니면서라도 상언을 써 자신의 상황을 알리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뜻한 바를 성취하려는 '춘향'의 적극적 면모가 잘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③ (나)에서 이별 후 자신이 겪을 고난을 말하며 '도련님'의 마음을 돌리려는 모습을 통해, 문제 해결책을 강구하는 '춘향'의 치밀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 (나)에서 '춘향'은 이별 후 자신이 겪을 고난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춘향'은 '도련님'에게 자신을 살려 두고는 떠날 수 없다고 하며 이별하기 싫어하고 있지, 이별 후 자신이 겪을 고난에 대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④ (나)에서 '도련님'에게 주안을 울리며 어쩔 수 없이 이별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통해, 서글픈 현실을 감내하려는 '춘향'의 수용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 (나)의 '춘향은 결국 '도련님'과의 이별을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서글픈 현실을 감내하려는 '춘향'의 수용적 면모가 잘 나타납니다.

⑤ (가), (나)에서 '이별'이라는 두 글자를 철택로 깨뜨리고자하는 모습을 통해, 복받친 감정을 토로하면서 탄식하는 '춘향'의 격정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 두 작품 모두 '춘향은 '이별'이라는 두 글자를 철택로 깨뜨리고자합니다. 이러한 대목에서 '이별' 상황에서 복받친 감정을 토로하면서 탄식하는 '춘향'의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5. <보기>를 바탕으로 [A], [B]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 ③

<보기>

조선 후기에 책을 대여하고 값을 받는 세책업자는 「춘향전」을 (가)와 같은 세책본 소설로, 유흥적 노래를 지은 잡가의 담당층은 「춘향전」의 대목을 (나)와 같은 잡가로 제작했다. 세책업자는 과장되고 재치 있는 표현을 활용하여 흥미를 높이거나 특정 부분의 분량을 늘려 이윤을 얻으려 했다. 잡가의 담당층은 노래의 내용을 단시간에 전달하기 위해 상황을 집약해 설명하고 인물의 감정을 드러내는 가사를 반복해 청중의 공감을 끌어냈다. 연속되지 않은 장면들을 엮어 노래를 구성할 때에는 작품 속 화자의 역할이 바뀌기도 하였다.

(가)는 세책본 소설, (나)는 잡가입니다. 세책업자는 과장되고 재치 있는 표현을 통해 흥미를 높이고 분량을 늘려 이윤을 얻으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잡가는 상황을 집약하고 인물의 감정을 드러내는 가사를 반복해 공감을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① [A]에서 '생는 나을 일'이라는 과장된 표현을 쓴 것은 작품의 흥미를 높이려는 취지와 관련되었군.

→ [A]에서 이런 이별 상황을 두고 '생는 나을 일'이라고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기>에서 말한 과장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 흥미를 높이려는 취지와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A]에서 '도련님'에게 거듭하여 묻는 형식을 사용한 것은 분량을 늘리려는 의도와 관련되었군.

→ [A]에서 춘향이 '도련님'에게 거듭해 묻는 형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살자 하였소?', '잊어 계시오?' 등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춘향이 대답하는 부분의 분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③ [B]에서 첫 행에 작품의 상황을 제시한 것은 청중을 작품의

내용에 빠르게 끌어 들이려는 전략과 관련되었군.

→ [B]에서 첫 행에 이 도령과 춘향이 이별하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중을 작품의 내용에 빠르게 끌어 들이려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④ [B]에서 '못 가시리다'라는 구절을 반복하여 인물의 감정을 강조한 것은 청중의 공감을 유발하려는 목적과 관련되었군.

→ [B]에서 '못 가시리다'라는 구절을 반복해 춘향이 그만큼 이 도령과 이별하기 싫어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절의 반복을 통해 인물의 감정을 강조하고, 이는 <보기>에서 언급했듯이 청중의 공감을 유발하려는 목적과 관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⑤ [B]에서 화자가 해설자에서 인물로 역할을 바꾸는 것은 연속되지 않은 장면들이 엮여 작품이 구성되었음을 알게 해 주는 단서이겠군.

→ [B]에서 1~2행의 화자는 해설자이고, 3행부터의 화자는 춘향입니다. 그렇기에 화자가 해설자에서 인물로 역할을 바꾸는 것은 옳습니다. 하지만 연속되지 않은 장면들이 엮여 작품이 구성된 것은 아닙니다. [B]는 춘향과 이 도령의 이별 상황에서 춘향이 이별하기 싫다고 말하고 있는 장면이지, 연속되지 않은 장면들이 엮였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